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장애 사역기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17-18)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복음으로 인하여 의에게 종이 된 것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이 영어성경에서는 'slaves(노예)'로 되어 있는데, '종'보다는 '노예'가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리고 '종'과 '노예'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데, 종은 고용된 사람이고 노예는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어느 정도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예는 어떤 자유나 권리도 없는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 아닌 노예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약성경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라고 명령하면서, 단순히

고용된 종이거나 노동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인정해야 하는 사실로,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로 예수님은 주인, 우리는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동료가 되라는 초대가 아니라 그분의 노예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해서 이전에 없던 도움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주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했을 때, 그의 편지를 받아 본 독자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1세기 문

화의 관점에서 보면, 노예제도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적절히 묘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소유되어 항상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누구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예제도보다 더 혐오스러운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순종을 설명합니다.

노예제도는 1세기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노예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아무도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민족들로 구성된 노예들은 고대 로마사회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계층이었고, 로마제국 인구의 대략 5분의 1이 노예들이었습니다.

1세기 노예들은 소유주 앞에서 자신이 수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만족한다면 노예는 그에 따른 보상으로 자유를 얻을 수도 있지만, 주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노예는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상과 체벌은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자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에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인이신 예수님께 신실하게 복종하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께 복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요한일서 2장 3절).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자신이 노예 신분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주인 앞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예수님의 소유물이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원미니스트리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WRITTEN BY
장진원 목사님

DAY PROGRAM 두드림



자전거 여행을 꿈꾸며



빌립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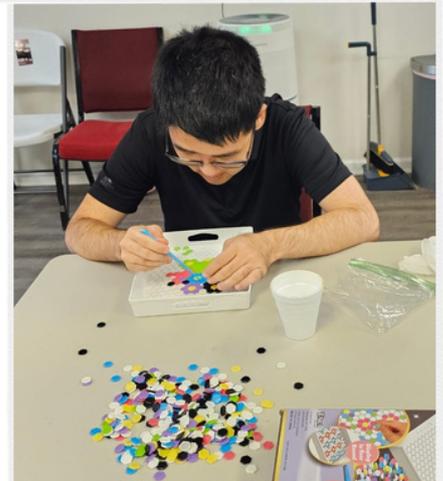
언제 봐도 흐뭇한 모습



퍼즐 완성이 코앞에..



습관성 어깨 탈골 예방을 위한 마사지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



형이 하는거 잘 봐~



두 분의 대화가 심각한 듯!



등이 뭉쳤나?

DAY PROGRAM 두드림



정연아~ 나랑 숨바꼭질하자



목사님 말씀에 집중 좀 하자



언제나 자유로운 영혼



신발 꼭 벗어야해요?



훈남의 미소



음악선생님과 즐거운 한때



동시에 할려니 헛갈리네

금요학교



경청하는 진우

한 게임 할까?

딸기 탕후루 만들기



행복한 운동 시간



태블릿의 주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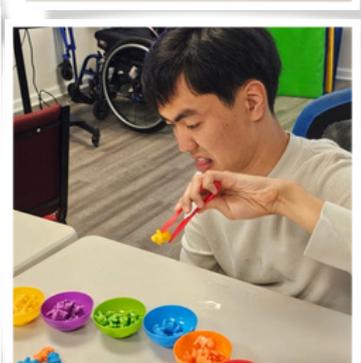


다음은 내 차례

미소가 예쁜 두 사람



꿈글학교 가을학기



Play, Learn and
Grow together
with Jesus!



ONE MINISTRY NEWS



11월 추수감사절 센터 휴일 안내입니다

원미니스트리 센터
THANKSGIVING BREAK
11월 26일-30일



여행 가기



Train



맛있는 거 먹기



Food



집에서 쉬기



Home

HAPPY
THANKSGIVING



CONTRIBUTION



10월 후원자님

Michael Kim (\$500)
[사랑이네 치과]
Connect Stem & Ji Edu (\$90)
이성규, 이미경 (\$900)
곽공욱, 서귀애 (\$1000)
Moya Cooper (\$30)
섬기는교회 (\$200)
Sally 성희 김 (\$2000)
[The Good Management]
최경숙 (\$300)
김성락, 정진이 (\$50)
장진원 (\$250)
채정림 (\$30)
주영광교회 (\$100)
이동욱, 이희정 (\$50)
노영우, 노형숙 (\$50)
박영숙, 유재원 (\$50)
안희을 (\$100)
구자은 (\$50)
애틀란타한국교육원 (\$1600)
Hye Kim (\$500)
Douglas Lee (\$150)



점심후원

황지우 가정 (10/10)
황지우 가정 (10/26)
이정연 가정 (10/30)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조지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으로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 Check 우편 발송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 334061943445

*Routing #: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와

oneministryatlanta@gmail.com을

등록 후 송금.

ONE MINISTRY CENTER



MAIN MISSIONS

1. 예배 및 선교 사역

*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 사역 지원

2. 교육 사역

*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 **꿈글학교**

* 금요학교

* Summer Camp

* After School Classes

3. 복지 사역

* 발달 장애 성인 데이 프로그램: **두드림**

Director: 장진원목사님

Open

Tue-Fri: 9 am-5 pm

Sat: 9 am-2:30 pm



302 Satellite Blvd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info@one-ministry.com



facebook.com/1000770455929



www.one-ministry.org



oneministry.atl